

## 하세데라 절

### 십일면관음상

#### 중요문화재

하세데라 절의 본존인 십일면관음보살상은, 높이가 10.18m로 목조 관음상으로는 일본 최대급에 속합니다. 하세데라 절의 십일면관음보살상은 8 세기에 오미(지금의 시가현)의 신령이 깃든 녹나무를 사용해 만든 관음상이 최초로, 후에 몇 차례의 낙뢰로 소실되기도 했지만 불에 타고 남은 상의 일부를 다음 관음상의 몸체 안에 넣는 형태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상은 153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표면이 금박으로 덮여 있습니다. 정면 얼굴 위에는 보살의 얼굴이 3면, 분노의 얼굴이 3면, 엄니를 드러낸 얼굴이 3면, 머리 뒤에서 웃고 있는 얼굴이 1면, 머리 위에 얼굴 1면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얼굴 1면은 관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후의 얼굴입니다. 즉, 관음에서 아미타여래로 변화한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세 관음은 관음으로는 드물게 오른손에 석장(승려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반석이라는 사각형 모양의 대좌 위에 서 있습니다. 대반석은 굳은 결심을 뜻합니다. 이는 관음의 자비심이 일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길 바라는 굳세고 강인한 마음임을 의미합니다. 봄과 가을, 3월 초순~7월 초순과 10월 중순~12월 초순의 기간에는 관음이 서 있는 방을 배관할 수 있으며, 그의 발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의 발을 만진 탓에 그 부분의 금박은 벗겨져 있습니다.